

# 광주(光州)향교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서 본 '광주읍성'의 교육과 교화\*

한예원\*\*

##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화민성속(化民成俗)의 광주읍성
3.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광주향교
4. 목민관의 광주향교 지원을 통한 풍교(風教)
5. 나오는 말

## <국문초록>

21세기 문명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어 광주는 '광주다움'이라 불릴 수 있는 정체성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주읍성'이라는 유실된 역사유적에 관한 문헌상의 자료를 가지고, 광주다움의 이미지를 찾아가는 상상력의 작업이다.

광주읍성은 사라진지 100년이 넘는다.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 사업'의 성과로 관련 문헌자료를 『광주읍성』이라는 책자로 편집하였다. 필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광주읍성 관련 많은 시문을 접하게 되었고, 본고는 특히 '향교' 관련 문헌자료를 가지고 광주읍성의 삶과 문화 중, 교육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향촌사회에서 '교육'은 정치의 일면이다. 향촌사회의 정치는 행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향촌민의 교화야말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로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상을 향촌사회에 실현하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교라는 교육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유지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광주읍성의 향촌교화의 목표 및 내용을 추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

광주향교의 교육목적은 사환의 길에 나갈 엘리트들에게 유학적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일과, 향촌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발양하는 교화에 있었다. 조선의 유학지식인들이 구축하려고 했던 유교적 예교 사회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향교교육이 이루어졌다. 광주 향촌 공동체가 추구하는 좋은 사회의 모습은 하은주 삼대의 순수한 풍교(風敎)가 실현되는 것이다.

**핵심어 : 광주읍성, 광주향교, 풍교(風敎), 교화(敎化), 교육공동체**

## 1. 들어가는 말

광주(光州)의 역사는 BC.5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 때는 무진군(武珍郡) 관할이던 것이 무진주(武珍州)로 승격되었고, 다시 892년 견훤(甄萱)이 후백제를 무주(武州)에 세우고, 왕건(王建)이 고려를 설립하면서 비로소 광주라는 지명이 나타나게 된다.<sup>1)</sup>

근대사회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광주는 전주(全州)나 나주(羅州)보다도 큰 호남 제일의 도시가 되었다. 21세기 문명전환의 시기에 이르러 광주는 아시아문화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는 ‘광주 다음’이라 불릴 수 있는 정체성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가까운 전주는 조선의 관향으로서, ‘전주학’이라는 개념을 내걸고 ‘예향’

1) 일본 점령기에는 光州面을 光州郡으로 승격하고 다시 光州府로 승격함. 1948年 光州市라고 개칭하고, 1986年 광주직할시로 승격하고, 1995年 광주광역시로 개칭 됨.

전주라는 이미지를 다방면에서 구축하여 왔다.<sup>2)</sup> 하지만 광주는 아직 ‘광주학’이라고 지칭할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시도하는 것은 광주읍성이라는 유실된 역사유적에 관한 문헌상의 자료를 가지고, 광주다움의 이미지를 찾아가는 상상력의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선 ‘광주다움’ ‘광주의 정체성’ 찾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읍성은 사라진지 100년이 넘는다. 그동안 광주읍성은 잊혀진 역사유적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3년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사이버광주읍성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 사업’의 성과로 문헌자료를 정리하여 『광주읍성』이라는 책자가 만들어졌다.<sup>3)</sup> 필자는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하면서 광주읍성 관련 많은 문헌자료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광주학’을 그려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광주읍성의 삶과 문화 중, 교육(教育)과 교화(教化)에 관련된 부분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향촌사회에서 ‘교육’은 정치의 일면이다. 향촌사회의 정치는 행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향촌민의 교화야말로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상을 향촌사회에 실현하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교라는 교육공간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지방 목민관의 향교지원과 교화 목표를 살펴보는 것은 광주지역의 풍교(風教)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sup>4)</sup>

2)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읍성』, 심미안, 2013.

3) 전주학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지리 등 오늘의 전주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전체사가 아니라 전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전주라는 지역과 전주 사람들의 성향과 특질을 해명하고, 그 삶의 흔적과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학을 비롯해 인천학·원주학·영남학·충남학·대전학 등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함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해가려 하고 있다. (이동희, 「전주학 정립의 필요성과 방법」)

4) 향교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김세민의 「광주향교의 이견과 중수」(『향토서울』75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김정신의 「조선전기 향교의 정치, 사회적 성격과 쇠퇴 원인」(『중원문화연구』13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9)이 있고,

## 2. 화민성속(化民成俗)의 광주읍성

광주읍성은 500년 이상 광주의 치소(治所)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그 터자리 마저 보존되어 있지 않은 유실된 역사유적이다. 따라서 광주읍성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문헌자료를 통하여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다행히 현재 읍성의 모습이 남아있는 고창읍성이나 낙안읍성을 통하여 개략적인 모습은 파악할 수 있다.

광주읍성의 시작은 고려 왕건 때 무주를 광주로 바꾸어 부르면서 시작된다.<sup>5)</sup>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읍성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972보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축조 시기라던가 구체적 건물의 양태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sup>6)</sup> 이후 많은 지리지류에 광주읍성

관련 기록이 보이지만,<sup>7)</sup> 『세종실록』과 별반 다른 것은 없다. 다만 『여

정덕희의 「조선후기 지방정부의 향교 재정 부담 규모 추정」(『한국교육사학』35권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정호훈의 「조선후기 향교 교육과 단양(丹陽)」(『중원문화연구』13권, 2009)을 참조하였다.

5) 박선홍, 『광주 1백년 1』, 금호문화, 1994, 31쪽.

6) 단, 조선왕조 태종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나주, 보성에 성이 축조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광주읍성도 이시기 정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광주읍성』,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997, 15쪽)

7) 『광주읍성』,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997, 14~15쪽, 재인용.

① 『세종실록』 151 地理志 茂珍郡條：邑石城，周回九百七十二步.

②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光山縣 城郭條：邑城石築，周八千二百五十三尺，高九尺，內有百井.

③ 『東國輿地志』 光州 城郭條：州城石築，八千二百五十三尺，立門四，東曰南曰西曰北曰，內有百井.

④ 『輿地圖書』：邑城石築，周八千二百五十三尺，高九尺，內有百井池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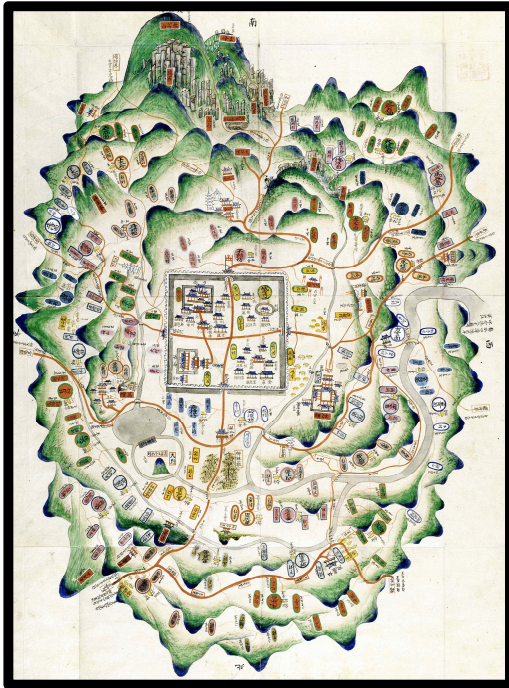
⑤ 『輿圖備志』：邑城石築，周八千二百五十三尺，高九尺，城門四，井一百.

⑥ 『大東地志』：邑城，周八千二百五十三尺，城門四，井三十一.

⑦ 『海東地圖』 下 光州牧：光州牧邑城，周回一千四百一把.

⑧ 『湖南邑誌』 光州邑事例 城池條：邑城石築，周八千二百五十三尺，高九尺，女堞無，城門四，池無.

⑨ 『光州邑誌』 城池條：邑城石築，周八千二百五十三尺，高九尺，井一百，女堞無，



1872년 지방지도(光州地圖, 奎10497)

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안에 우물 100개가 있고 연못은 없다”고 하여 성안에 물이 귀했음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우물이 100개 있었던 것은 아니고, 31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면적에 비하여 우물의 개수가 많은 편이다. 읍성의 위치가 큰 산인 무등산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우물을 파서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광주읍성은 ‘정방형’의 성곽으로<sup>8)</sup> 성안과 성밖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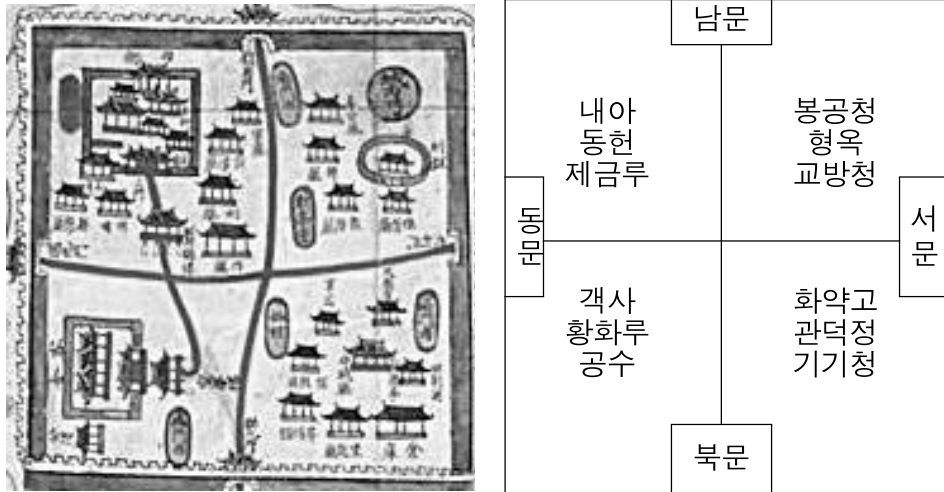
나뉜다. 성안에는 객사와 동헌, 향청(鄉廳), 작청(作廳), 공수청(公須廳), 장청(將廳), 형방청(刑房廳), 형옥(刑獄), 창고(倉庫) 등 행정에 필요한 관아 건물들이 위치하고, 또 관아에서 근무하는 아전 등의 민가도 있었다. 성곽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는 문과 거기서 성안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십자형으로 교차하였다. 필자는 이 사방으로 나가는 문과 십자형 도로를 광주읍성의 특징적 이미지로 꼽고 싶다. 보통 산을 배후로 하는 읍성의 경우 북쪽문과 북쪽 길은 막혀있는데 반하여, 광주읍성은 사방으로 통하는 소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미지이다. 그 이미지를 전

城門四, 瑞元鎮南光利拱北門, 池無,

⑩ 『朝鮮環輿勝』: 邑城石築, 周八千二百五十三尺, 城門四, 東瑞元, 西光利, 南鎮南, 北拱北.

8) 備邊司印 方眼地圖 湖南地圖

하는 도상이 다음이다.



1872년 지방지도 전라좌도 광주지도

위와 같은 읍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의 문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성현(成俔, 1439~1504)은 1480년(성종 11)에 광주객사의 중수기(重修記)를 다음처럼 남기었다.

한 도(道)에서 중요한 곳은 주(州)와 같은 곳이 없고, 한 고을(邑)에서 중요한 거주지는 관사(館舍)만한 것이 없으니, 주는 고을이 큰 것이고, 관사는 손님들을 대접하고 여행자를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사에는 동서에 헌(軒)이 있는데, 동헌(東軒)은 귀인들이 와서 머물고 관찰사가 재판하기 위하여 송사를 듣는 곳이니, 야기(牙旗)와 절월(節鉞)이 세워지고 문안(文案)과 간독(簡牘)이 놓여져, 백성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구조와 뜰을 장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위엄을 느껴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한다. 그리고 사신(使華)과 빈객들이 연회하는 곳이어서, 가무가 베풀어지고 술잔들이 넘겨져, 위로는 읍양(揖讓)과 주선(周旋)하는 것이 용납되어야 하고, 아래로는 진퇴(進退)와 보무(步武)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반드시 마루와 집이 넓어야 합당하다. 그러므로 정치를 잘하는 이가 퇴폐되고 쓰러진 것을 수리하고 세울 때에는 백성들이 그 수고로움을 잊으며, 정치를 잘 못하는 자는 처음도 두렵고 끝도 두려워 기와 한 장, 서까래 한 개를 바꾸지 못하는데도 그 고을은 날로 쇠퇴해 간다.<sup>9)</sup>

사실 성현(成俔)은 살아생전에 광주는 물론, 호남 땅도 밟아본 적이 없었다. 친구 최영(崔榮)이 첨추(僉樞)로 광주에 부임한 설순조(薛順祖)의 보좌가 되어 기문(記文)을 부탁하자 자신의 평소 생각을 위와 같이 서술한 것이다. 우선 광주가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았으며, 읍성 안 건물들은 지방관이 정사를 돌보면서 백성들에게 목사의 권위를 드러내는 공간임을 인정한다. 또 읍성의 중요 역할 중 하나는 광주에 오는 손객을 맞이하여 의례를 행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지방관의 경세 능력에 따라 백성들이 심복하여 읍성공간을 정비하는 토목공사에 재물과 공력을 아끼지 않고 솔선해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사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은 기왓장 한 장 교체하기 어렵다고 결과적으로 고을이 피폐하게 된다고 경계한다. 읍성과 부속 관아 건물들이 잘 보존되고 수리된다는 것은 지방관의 치적의 증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광주읍성에 인조 때 문인 이었던 서정연(徐挺然)은 객사에서 몇 일간 머물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었다.<sup>10)</sup>

光山大縣雄南州，  
地勢北來何穹窿。

城郭人民亂離後，  
十戶八九皆成空。

(중략)

池塘亭射餘古迹，  
大道如砥通南北。

광산 큰 고을 남쪽 고을에서 웅장하고,  
땅의 형세는 북쪽에서 내려와 높다랗게 솟구  
치고

성곽과 인민들 난리 후에  
십호 중 팔 구호가 모두 빈집이네.

연못과 활터 누정에는 옛 자취 남아있고  
반듯하게 뻗은 큰 길 남북으로 통하였네.

9) 성현, 「중수기」, 『광주읍지』, 「공해조(公廩條)」, 1879. : 一道之重莫如州, 一邑之居莫如館舍. 州者邑之大者, 而館舍所以待衆賓, 庇群旅也. 然而館有東西軒, 東乃貴者所寓, 而觀察使聽訟之所, 則牙節建焉. 案牘委焉, 人民萃焉, 必壯其廉陛, 使人儼然瞻望而畏之也. 使華賓客讌飲之地, 則張歌管羅樽疊, 上可以容揖讓周旋, 下可以容進退步武, 必廣其堂宇然后允合其宜也. 是故善莅政者, 修舉廢墜, 而人忘其勞, 其不善者, 畏首畏尾, 不能改一瓦易一椽, 而州邑日以耗矣.

10) 광주직할시, 『광주읍지』, 1990, 47~48쪽.

無等層巒淑氣濃,  
其間往往人生傑.  
(중략)

化民成俗政之本

李侯茲州治不治

높이 솟은 무등의 피 숙기가 짙어  
이 사이에서 이따금 인걸이 태어나네.

**백성을 교화하고 좋은 풍속을 만드는 것은 정사의 근본**

현감 이후(李侯)가 이 고을에서 다스려지지 않던 것을 다스리네.

서정연은 1631년(인조 9)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서 부임하였다. 이 시는 아마도 부임하기 전, 이씨 성(姓)의 광산현감이 재임할 때 광주를 방문하여 지은 작품인 듯하다. 광주읍성의 북쪽은 장성 쪽이 되고 남쪽은 무등산 화순 쪽이다.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남북의 길이 반듯하게 뚫려 간선도로가 되고 있다. 호남지역은 임진왜란 때보다도 정유재란 때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sup>11)</sup> 이 시에서도 마을의 80~90%가 빈집이 될 정도로 피해가 컸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현감의 선정으로 백성들은 교화되고 좋은 풍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화민성속(化民成俗)’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이것은 광주의 정치적 이미지이다.

구체적으로 이씨 성의 현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광주읍지』의 「읍선생조」에 따르면 1624년 부임한 이배원(李培元, 1575~1653)<sup>12)</sup>, 1626년 부임한 이유달(李惟達, 1579~1635)<sup>13)</sup> 중의 하나라고 추정된다. 광주 백성들의 교화와 좋은 풍속은, 17세기 호남지역에서 사회경제 방면과 학술, 예술, 문화 방면에서 많은 인사가 활동하면서 이루어진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14)</sup>

11) 李安訥, 『東岳先生集』 권9, 「潭州錄」, 「風詠亭 次壁上韻」: 湖南一道, 自經丁酉, 倭賊兵火, 村舍籬落, 盡爲丘墟.

12) 자는 양백(養伯), 호는 귀휴당(歸休堂)

13) 자는 겸선(兼善). 조선왕조실록(인조)에 의하면 이유달은 1625년 11월 지평이었다. 그러나 1626년 1월 광산 현감(光山縣監) 이유달(李惟達)이 사천 현감(泗川縣監) 현탁(玄倬), 광양 현감(光陽縣監) 안식(安湜) 등과 하직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14) 줄고, 「16세기 사회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고시가연구』 14

광주읍성에 관련된 시문 중 주목을 요하는 것은 조선 후기 지도군수와 여수군수 등을 역임한 오횡묵(吳弘默, 1834~미상)의 「광주부(光州府)」와 「지도군 총쇄록」이라는 작품이 있다. 그는 「광주부」에서 광주는 무등산 아래 고을로 면적과 호구가 나주만큼 크며, 또 관아의 위엄이 전주만큼 높으니 광주부의 명운에 득실이 있다고 하였다.<sup>15)</sup> 그는 광주부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다.

(전략)

太守埒古侯	태수는 옛 제후와 비등하니
赫赫官不冷	번쩍번쩍 빛나는 관청은 썰렁하지 않네.
今歲陞爲府	금년에 부로 승격했으니
譬如錦尙褻	비유하면 비단옷에 홀옷을 덧입은 듯 경사라네
南道歸專轄	남도가 광주부의 관할 아래로 돌아가
下風聽肯綮	아랫 고을에서 광주부의 긴요한 명령을 듣네.
百度與俱升	온갖 법도가 광주부와 함께 올라가
仰望青雲頂	푸른 구름의 꼭대기를 우러러 보네
節旄霜風凜	임금이 준 부신(절모) <sup>16)</sup> 의 위엄 서리발 같이 늠름하고
澄堂秋水澄	<b>광주 목사 집무소(정당)<sup>17)</sup>는 가을 물처럼 맑도다.</b>
野渡無時閑	들판의 나루는 한가할 때가 없으니
來去列郡艇	줄지어 드나드는 여러 고을의 배. <sup>18)</sup>

(후략)

광주가 부로 승격됨에 따른 광주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를 부각시켰다. 광주부는 조선의 관향인 전주와 호남의 제일 성읍인 나주와 같은 위상에 오르게 되고, 주변의 지방 목사 및 전남 도서지역의 목사들에게도 영향력

집, 2004 참조.

15) 오횡묵, 총쇄록선(叢瑣錄選)

16) 절모(節旄) : 임금이 사신(使臣)에게 부신(符信)으로 주는 깃대. 모(旄)는 깃대 머리에 다는 쇠꼬리 털, 또는 그 기(旗)

17) 정당(澄堂) : 광주 부윤이 집무를 보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자세하지 않다.

18) 오횡묵, 『叢瑣錄選』, 「光州府」

을 떨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광주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임금에게서 받은 권한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치 가을 서릿발처럼 엄정하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는 지리적으로 바다에서 연결되는 영산강 지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물이 번성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목사 자리는 많은 유혹이 따르기 때문에, 견리사의(見利思義)를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한다. 목사의 관청을 정당(澄堂)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을 물(秋水)처럼 맑게(澄) 공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물이 번성한 광주지역에, 견리사의하는 지방관이 화민성속의 정치를 시행하면, 이상적 광주가 된다는 설정이다.** 그렇다면 목사는 광주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를 실행하였는가? 장을 바꾸어 유교적 정치의 실천을 살펴본다.

### 3.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광주향교

왼쪽에 사당이 있고 오른쪽에 사직이 있으며(左廟右社), 앞에는 관아가 있고 뒤에는 저자가 있다(前朝後市). 이것은 주례 고공기(周禮考工記)에 나오는 성읍의 공간위치이다. 중국과 조선의 대부분의 읍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묘(文廟)를 모시는 향교는 성(城)의 서쪽에 자리잡게 되었다.

광주향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이다.<sup>19)</sup> 외삼문을 통해 향교로 들어가면 왼쪽에 명륜당이, 오른쪽 언덕 위에 대성전이 위치한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五聖)과 십철(十哲)을 안치하고, 또 동서에 행랑을 지어 70제자와 역대의 여러 현인을 안치했다. 앞에는 명륜당(明倫堂)

19) 대지가 평지인 경우는 전면에 배향공간을 배치하고, 후면에 강학공간을 배치하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이 되는데 서울의 성균관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지가 구릉을 낀 경사진 터일 경우에는 높은 뒤쪽에 배향공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학공간을 배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가 된다.

을 두어 강학(講學)하는 곳으로 삼았다. 명륜당 동쪽과 서쪽에 협실(狹室)을 두었는데, 동쪽은 교관(敎官)이 앉는 곳이고, 서쪽은 사마재(司馬齋)라고 하여서 고을의 진사(進士)가 있으면서 학업을 닦는 곳이다. 뜰아래 동쪽과 서쪽에 재(齋)를 두고 유생들의 거처로 삼았다. 향교의 이러한 구조는 서울의 문묘인 성균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향교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향교는 주자학의 보급 및 사대부의 성장과 함께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향교는 그 지역의 천민이 아닌 16세이상 60세 이하의 군역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사환(仕宦)에 나가기 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교생(校生)도 있고, 또 유교경전 공부와 문학에 열중하는 교생도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와 대학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국가의 관리 양성을 위하여 유학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향교를 다니면서 생원이나 진사시험 외에 전문적인 잡직에 응시하는 계층도 있었지만, 교육내용의 대부분은 유학의 경전교육과 문예교육이었다. 향교는 설립이나 운영 면에서 지역 지방관의 지원과 지시 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향교는 행정 체계상으로는 예조에 소속되지만, 각도 감사와 목사가 직접 감독하거나 지휘하였다.

향교의 교관과 교생에 대해서는 성종때 완성된 『경국대전』과 영조때 보완되는 『속대전』에 의거하여 그 면모를 살필 수 있다. 특히 광주향교에 대해서는 1854년(철종5)에 기정진(奇正鎭)이 기록한 「문묘중수기(光州文廟重修記)」에 전후의 사정이 소상하다. 기정진은 “옛날에는 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국도(國都)를 비롯해 지방의 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같았다. 이들은 교수(敎授)와 훈도(訓導)라는 직책으로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이었다.”고 하였는데, 교수는 6품 이상으로 주와 부의 향교에 재직하였고, 훈도는 7품 이하로 군과 현에 파견되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 모든 향교에 중앙에서 교관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약 330명의 관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행되기 어려웠

다. 따라서 각 현에서는 관인이 아닌 각 지역의 생원·진사를 교도직, 또는 학장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하여 충원하였다. 기정진은 그러한 사람을 학관(學官)이라고 지칭하였는데, 그들은 정식의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학문의 길로 이끌 뿐, 학교의 건물관리 라던가 재정관리 등의 일은 지역 지방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따라서 향촌사회의 풍속을 이끌어 한 고을의 풍습을 크게 변화시키는 교화와 양육의 일은 학관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었다.<sup>20)</sup>

더욱이 영조때 나온 『속대전』 이후에는 학관이 폐지되면서, 학관이 담당하던 교육부분까지도 지방관의 소관이 되었다.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풍습을 순화시키는 사회교육의 임무가 모두 지방관의 소임이 되었던 것이다.<sup>21)</sup> 또 향교의 교관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문과합격자들이 지방의 교관직에 부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현실적 한계에 따른 차선책으로 지역의 생원이나 진사를 교관으로 임명하였지만, 그들도 교관으로 부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관직 회피는 『속대전』 이후에는 더욱 심해져서, 향교의 유림들이 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자치적으로 교관을 임명하고 담당하였다. 따라서 기정진이 이 기문(記文)을 쓸 때는 향교 학관마저도 지방관이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학관에 부임할 인재가 드문 것과, 향교보다는 서원을 선호하고, 대과 응시를 선호하는 쪽으로 지역의 풍습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2)</sup> 이렇게 향교의 일은 지방관의 임무로 가중되었지만, 어렵게 그 일을 처리하여도 알아

20) 기정진, 『蘆沙先生文集』, 권21, 「光州文廟重修記」: 古者有學斯有官, 以至外州縣皆然. 國朝原典所載教授訓導, 卽其職也. 然學官所專掌, 導迪一事, 若齋舍之修造, 稍廩之經紀, 猶不能無待於守土之官. 況風勵作成, 丕變一方之趨向, 使教養之意, 得以下究, 又豈學官之力所能獨辦.

21) 기정진, 『蘆沙先生文集』, 권21, 「光州文廟重修記」: 自續典行, 而教授訓導廢不復置, 於是學官之職, 專歸於守土. 此土人才士習, 有不古若者, 無所歸咎, 亦曰艱哉. 厥職之艱, 知之者蓋或鮮矣哉.

22) 金文澤,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金大植, 「朝鮮 書院 講學活動의 성격」, 『教育史學 研究』 Vol.11, 서울대학교, 教育史學會, 2001. 참조

주는 사람은 적었다. 또 실제로 지방관이 향교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10~20일에 지나지 않았다. 즉 지역의 뛰어난 인재 30~50인을 모아 향시를 실시하여,<sup>23)</sup> 그 점수를 매겨 등제시키는 업무를 보는 기간 정도에서 그치고 만다. 향교의 교생은 그 시험마저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비록 1년의 기간 중 학자 한 사람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교의 교육을 통하여 교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진은 학교의 존재 이유를 다음처럼 단언한다.

학교는 관리를 양성하는 도구요, 관리 양성은 학교의 실질이다. 실질이 이미 해이해지면, 그 도구는 무너지길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인 것이다.<sup>24)</sup>

조선 중기 이후는 사학교육기관인 서원이 크게 융성하였다. 특히 17세기 후반부에서 18세기 전반부의 숙종 대에는 그 이전에 세워진 서원 수보다도 많은 327개의 서원이 세워졌다.<sup>25)</sup> 이렇게 서원이 발전하였던 조선 중기 이후, 향교는 침체기에 들어갔다. 국가의 지원도 서원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향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향교는 외형을 중수하는 일도 중지되고, 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도 어려웠다.

향교가 교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유생들도 향교를 멀리하고 사학교육 공간인 서원(書院)이나 정사(精舍)등을 선호하게 되었다. 향교의 교육여건이 서원보다도 불충분하여 유학교육을 전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또한 사학을 육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생들은 향교보다도 서원의 과거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서원을 선호하였다.<sup>26)</sup> 기본적으로 조선의 경우는

23) 『경국대전』에 따르면 향교의 교생 정원은 부·대호부·목에 90명, 도호부에 70명, 군에 50명, 현에 30명으로 되어있다.

24) 기정진, 『蘆沙先生文集』, 권21, 「光州文廟重修記」: 學校之於養士具也, 養士之於學校實也, 其實既弛 則其具不期, 頹而自頹 亦其勢也

25) 상계서, 226쪽 <표Ⅲ-1> 시기별 서원 건립 및 사액수 참조.

26) 줄고, 「호남지역 서원의 교육활동-『죽수서원지』를 통해 본 유교교양의 수용」, 『

관학과 사학 어느 쪽의 유생도 과거에 응시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교의 교생들은 교육연한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세까지는 향교에 머무르면서 학생신분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후기로 갈수록 향교에 입학한 교생은 서리나 관원으로 진출하거나 연례적인 시험에 과락만 되지 않으면 평생 교생의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었다.<sup>27)</sup>

1698년 광주목사로 부임한 박태항(朴泰恒, 1647~1737)은 「양사재절목서(養士齋節目序)」라는 글에서 관학이 인재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부각시켰다. 박태항은 학교를 만들고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함은 조정의 임무임과 동시에 지방관의 직무라고 자각하였다. 그는 광주에 부임하여 40여명의 나이 어린 영재를 선발하여 교육하려고 하였으나 재원이 없어 곤란을 겪던 중, 향교 중수기에 단돈 10양(兩)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양사전(養士錢)을 기획하였다. 10양(兩)도 기록에만 있을 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박태항은 자신의 사재 중 미(米) 20석과 조(租) 25석을 양사전(養士錢)이라는 일종의 장학금으로 기부하여 양사재라는 창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옛사람들이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던 취지를 계승하여 현실에 실행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목사의 이런 인재양성 취지를 고을의 인사들은 양사의 도(道)를 얻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우려에 대한 박태항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광주라는 고을은 인재가 많은 고장으로 선인들의 바른 정사의 유습과 교화에 젖어있고, 오래된 가문의 유풍(遺風)을 이어받아 방법을 아는 선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한번 정법(定法)을 세워놓으면 그 후로는 반드시 서로 더불어 강론하고 노력하여 끝내 반드시 완성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sup>28)</sup>

유학연구』 22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0 참조.

27) 정낙찬 외 2인 편저, 『한국의 전통교육』, 영남대출판부, 2002, 213~214쪽.

28) 朴泰恒, 「養士齋節目序」: 余應之曰否否. 光之爲州人材之府庫, 沐先正之流化, 襲

당시 박태항의 광주인식은 확고했다. 그는 자신의 관할지역인 광주가 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그동안 선임 목사들이 올바르게 이끌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의 재원만 마련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재주와 학식이 있는 연소(年少)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되어 학문의 길을 도와주고, 거업(學業)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정(科程)에 밝은 사람이 스승이 되어 과거에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의 방법으로 매월 삭망(朔望)에 선발된 인재들의 학업을 평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학문의 길을 가는 학생에게는 도의(道義)를 강론하고, 과거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과거 답안에 필요한 제술(製述)을 과시(課試)하는 평가방법이다.

박태항의 인재양성책은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에서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의 회식을 통한 친목도모와 과거 응시에 따른 비용지원까지 구체적이었다. 특히 재주 있는 학생이 곤궁하여 향시나 과거에 합격하고도 스스로 그 다음 단계의 과거응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런 재정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사(有司)와 지역 장로(長老)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야 광주의 유교적 교육공동체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박태항의 인재 양성책은 지역민을 교화시키고, 지역의 인재가 유학자로 또는 과거를 통한 관리로 육성되게 돕는 것이 지방관의 업무 중 중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자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 목민관의 광주향교 지원을 통한 풍교(風敎)

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각 군현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가 내

---

故家之遺風, 多有知方之士, 一立定法之後, 則相與講勉, 終必有作成之美矣.

려지면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건국(1392년) 이후 정책적으로 1읍1교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의 모든 군현에 향교가 설립되었다. 성종 11년에 “중앙에는 학교를 열어 유학의 수준을 높이고, 지방에는 학교를 설치하여 생도를 권유하여 문예를 연마하는 장으로 삼아, 경서를 연구하는 학업을 넓히도록 하라”고 교서가 내려졌다. 향교의 수립은 수령, 교관, 지방유지의 협력, 즉 유교적 교육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교육은 수령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령은 향교설립과 운영의 주체이다. 유교적 실천윤리를 정착시키는 것은 지방관의 수령칠사(守領七事) 중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였다.<sup>29)</sup>

광주향교는 태조 7년(1398)에 무등산 장원봉 아래 세워졌으나 호환(虎患)으로 읍성의 동문 안으로 이전했다고 한다.<sup>30)</sup> 막상 성안 저자거리로 향교를 옮기자 시정의 소란스러움에 학교의 풍취를 잃었고, 게다가 지대가 낮아 홍수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1488년 권수평(權守平) 현감이 성문 밖 서쪽의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

현감 권수평은 조선 초기의 유학자로 광주에 부임한 이후 고을의 폐단을 없애고 적체된 옥사를 처리하면서 민생을 살폈지만, 무엇보다도 성안에 있던 향교의 부흥에 노력한 것이 높이 평가된다. 성현은 「광산향교중수기(光山鄉校重修記)」에서 권수평의 치적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성안에 있던 구향교는 지대가 낮고 좁았으며 건물이 기울고 낡아 강학의 장소로 적당치 않기에 고을 부로들과 상의해 성의 서쪽에 터를 잡고 학교를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권수평의 노력에 많은 백성들이 감동하여 협력하였는데, 특히 향교 재정을 위하여 권수평이 사재를 출연하였던 것을 귀감으로 삼았다.

권수평은 향교 앞 백성의 땅을 사들여 논과 채마밭을 만들고, 또는 향교 소속 노비들의 집을 마련하였으며, 또 백성들의 밭을 사서 반은 향교에 기부하고, 반은 사마재(司馬齋)에 주어 재정의 바탕으로 삼게 하였다.

29) 정낙찬 외 2인 편저, 앞의 책, 209쪽.

30) 강항, 「重修上樑文」

또 현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세금으로 들어온 면포(綿布) 백필, 쌀 백석, 콩 이십석을 향교 교생들의 비용으로 삼았다고 한다.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면학을 위하여 사서, 오경, 제자서, 운서(韻書)등을 마련하여 열람하게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재정적 물적 지원은 감사(監司) 및 도사(都事)들도 참가하였는데, 감영(監營)에 있는 무명 40여 필, 조세 곡식 50여석을 광주향교에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위의 권수평 현감의 향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당히 모범적 사례가 되었던 것 같다. 정약용도 『목민심서』 「예전(禮典)」의 흥학(興學)조에 권수평의 일화를 인용하여 소개한 뒤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학의 풍교가 크게 진작되고, 유학의 가르침이 더욱 밝아지게 되었다. 단정하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여 향교의 재장(齋長)으로 삼고 사표(師表)가 되어 교생들을 통솔하게 하였다. 그들을 예의로서 대우하여 향촌민들이 예의엄치를 알도록 하였다.<sup>32)</sup>

다산은 주자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 목민관들이 유학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실례를 들고 있다. 그 중 조선의 목민관으로 권수평의 광주현감 때의 치적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권수평이 향교의 재정 지원에 솔선수범한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향교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였다. 유학적 교육을 실천하여 풍속의 교화 즉 풍교(風教)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향교의 교생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예의엄치를 아는 사람, 즉 사회적 질서인 예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31) 성현, 『허백당집』 권4, 「光山鄉校重修記」: 學校舊在城中, 湫隘頽陟, 縣監招父老而進之, 先聖之居不稱, 盍圖而新之. 咸曰惟命, 遂卜地於城西二里許, 庶民駢闐, 如子趨父事, 不數月而功役告訖. --중략-- 校前有民田數頃, 縣監出財買之, 或治爲水田, 或爲菜圃, 或爲僕隸之家. 又以舊校之墟, 悉屬於學而爲田, 又買民田, 半入於學, 半入於司馬齋. 又以綿布百疋, 租穀百碩, 充學生之用. 又以綿布二十疋, 租穀二十碩, 爲上舍生之所用. 又備四書五經諸子韻會, 皮而藏之.

32) 정약용, 『목민심서』 권7, 「禮典」, 興學: 由是儒風大振, 文教益明. 簡選端方, 使爲齋長, 以作表率, 待之以禮, 養其廉恥.

이다.<sup>33)</sup>

지방관에게 있어서 관아가 지역사회의 행정과 사법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치세(治世)의 장소라면, 향교는 지방관이 유교적 이상을 실천에 옮기는 교화(教化)의 장소이다. 지방관의 경세(經世)는 이런 두 방면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수평 현감은 재정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공무의 틈을 타서 유생들과 경학을 담론하면서 인재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물의 이치가 모두 구비되어 윤리가 펴지고, 정교가 시행되며, 상하와 준비의 질서가 문란하지 않고, 사특한 말이 기승을 부리지 못해 오랑캐 풍속을 면하게 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광주에 부임하는 많은 지방관들이 문묘는 물론이거니와, 향교 건물 보수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였던 것이 다수 기록에 남아있다. 특히 지역민들이 재물을 염출하거나 노역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관 자신이 세비(歲費)를 추렴하거나 관급미(官給米)를 지급하여 충당하였다.<sup>34)</sup> 향교건물이 보수되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역의 장로와 유생들을 초청하여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행하면서 효제의 뜻과 강학의 방법을 알리는 의례를 행하였다. 이러한 의례 자체가 지역민을 교화하는 일이며, 당시의 사회인교육, 또는 공공교육의 하나이며, ‘치국’의 일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유풍(儒風)이 크게 진작되고 덕교가 더욱 밝아져서 고을 사람 중에 준수한 인물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였는데, 배울 때에는 덕과 성품을 잘 기르고, 행할 때는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인(仁)에 빠지고 의(義)를 갈고 닦아 모두 선(善)에 교화되었다. 이후에는 광산의 학교가 다른 읍보다 성하고

33) 목민관의 풍교(風教)에 대한 다산의 이러한 고찰은 조선후기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는 별로를 마련하고 준비하려고 한다.

34) 趙寅永, 『雲石遺稿』 권10, 「明倫堂重修記」: 今光州牧趙侯徹永, 以歲辛丑秋, 始蒞于州, 州校之明倫堂及東西兩齋俱災. 侯惕然曰, 聖廟事不可緩也. 亟命鳩材募匠, 涓吉日興役, 纔月餘, 功告訖, 堂之楹二十有四, 兩齋之楹十有二, 用緡錢幾何, 皆出於廩, 斂不及民.

인재가 찬연하게 배출되었다.<sup>35)</sup>

지방관들은 유풍(儒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다. 교화를 통하여 유교적 예절을 향촌민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또 교육을 통하여 뛰어난 질서를 유지시킬 관리양성을 도모하였다. 권수평 현감 때 향교가 이전되고,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 소실되기 전 1560년에 유경심(柳景深)이 광주목사로 부임하여 낡은 향교를 중건했다.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은 1563년 「대성전중수상량문」을 남겨서 이때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실로 성현이 향교 이 건기를 쓴 뒤 75년이 지난 시점이다. 성현은 향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술하였던 것에 비하여, 기대승은 목사의 치적보다는 향교로 인해 풍교(風教)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기대승은 자신의 유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향교의 교육적 위상을 짚어보고 있다. 그동안의 유교적 교육의 결과로 인심이 천리(天理)에 의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인심을 해치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리를 받아들인 인심은 민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천도가 실현되는 유교적 이상사회가 도래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인민의 교화는 시운(時運)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향기나는 연기나 수증기에 훈증(薰蒸)하는 것처럼, 또는 향기나는 물에 녹이거나 적시듯(融液) 해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향교의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유교적 이상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유교적 가르침을 교육하는 교화의 과정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규를 새롭게 정비하여 삼대(三代)의 인륜을 밝히고, 문묘의 제사의례를 더욱 엄중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대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의 조선이 유교국가임에 강한 자부심

35) 성현, 『허백당집』 권4, 「光山鄉校重修記」: 由是文風大振, 德教益明, 邑人俊秀來遊其間, 學則薰陶德性, 行則罄盡誠敬, 漸仁磨義, 皆化於善. 然後光之學校比他邑爲盛, 而人材彬彬然輩出矣.

을 갖고 있었다. 대동(大東)지역은 집집마다 공자와 맹자, 주자(周子)와 정자(程子)를 숭상하여 문치(文治)가 이루어지고,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을 즐기기 때문에 선비의 풍습이 올바르고 순박하다고 설명하면서, 그중 더욱이 호남은 큰 지역(雄洲)으로 상마(桑麻)와 화곡(禾穀)등 물산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현달한 관리와 뛰어난 인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지역민들이 인간이 살아갈 향방을 알고 있다고 한다. 기대승이 이 문서를 작성할 때, 그는 중앙에서 승정원 주서, 봉교, 부수찬 겸 경연검토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때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 특히 호남지역이 유교적 덕화로 이상사회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향촌민 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교의 본거지(儒宮) 향교가 오래되어 무너져내리니, 이것은 실로 도맥(道脉)이 쇠잔해짐과 다름없었는데, 유경심(柳景深) 목사가 중수함에 따라 지역민은 ‘치국’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역의 가장 소외계층인 홀아비와 과부(鰥寡)가 그 지방관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뛰어난 인재가 양성되어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향교의 중수는 단순히 허물어져가는 향교 건물을 보수하고 개선하는데 그 효과가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해와 달이 빛나고 네 계절이 운행되어, 유도(儒道)가 크게 널리 퍼질 것을 기대하네.

종묘는 아름답고 백관은 풍요로우니, 누군들 성인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의심하리요.

문득 공자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에서 예악을 실천하던 모습과 같아지게 하고자, 은밀히 비궁(闕宮, 종묘)의 의례를 말씀 드리네.<sup>36)</sup>

기대승은 중수된 향교에서 유학적 교화가 크게 일어나 광주지역에 유교적 이상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마치 공자가 제자 자유

36) 奇大升, 「光州鄉校大成殿上樑文」, 『광주향교지』, 광주향교지편찬위원회, 1987 : 日月照四時行, 佇倚丕闡乎儒道. 宗廟美百官富, 孰疑難入於聖門. 輒同武城之歌, 竊申闕宮之儀.

(子游)가 읍재로 있던 무성(武城)이라는 작은 고을에 갔을 때, 거문고 가락에 맞춰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유가 공자에게 학습한데로 예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광주에서 예약에 근거한 정치가 이루어져 향촌민의 교화가 이루어지길 고대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향교가 소실된 뒤, 1600년 목사 이상길이 부임해 전당(殿堂)과 방실(房室)을 새로 지었다. 이에 강항(姜沆, 1567~1618)은 광주향교 「중수상량문(重修上樑文)」을 남겼다. 영광출신인 강항은 형조 좌랑으로 근무하던 1597년 봄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와 머무는 동안 정유재란을 맞았다. 그는 군량 운반을 독려하고 의병을 모집하다가 서해 바다에서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이후 3년 뒤, 1600년 5월 돌아왔다. 강항은 광주의 교화는 다른 곳에 견줄 바 없는 수준으로 높고, 선비들은 중국 유학 천년의 전통을 터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지금도 유학의 도(道)를 의논하는 생원(生員) 수가 대폭 늘어날 정도라고 한다.

강항은 공자를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봄가을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인 향교는 비록 최고의 권력자인 천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역이라고 자리매김한다. 향교는 풍속교화의 근본이기에, 국가 정치의 융성함과 쇠퇴함을 예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향교의 유교적 교육-교화가 근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는 중국과 다를 바 없고, 광주는 조선의 염락관민(濂洛關閩)<sup>37)</sup>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인걸들이 태어났으니, 이는 산천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학(敎學)의 효과라고 평가한다. 강항은 「중수상량문(重修上樑文)」의 마지막을 다음처럼 끝맺고 있다.

덕을 갖추고 학문을 닦아 상황에 대비하여, 유생들이 유학의 적통을 계승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룸은 반드시 학문에 따름이니, 세상을 하-

37) 주돈이(周敦頤)가 살던 염계(濂溪), 정호(程頤)가 살던 낙양(洛陽), 장재(張載)가 살던 관중(關中), 주희(朱熹)가 살던 민중(閩中)을 말함

주 3대의 순수한 풍교에 되돌리고, 성대하게 나라와 집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교화하고 인도하는 뜻인 것이다.<sup>38)</sup>

강항은 광주지역의 유생들이 유학의 적통을 계승할 수 있게하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여 성인의 치적이 이루어지게 교화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향교가 담당하기를 기원한다. 즉 향교에서의 유교적 교육-교화로 유교적 이상사회 실현을 기대한 것이다.

1600년에 중수되었던 광주향교는 1804년 목사 김선(金銑, 1750년~미상)<sup>39)</sup>에 의해 개수되기 까지 거의 200년간 지방관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듯하다. 건국 초기에는 수령들이 향교 설립과 진흥에 관심이 크고 열의가 높았지만, 15세기말 이후에는 수령들이 향교 진흥에 소홀했다.<sup>40)</sup> 광주향교도 낙후되다가, 김선 목사 때 고을 제생들이 개수를 요청했다. 이에 목사는 봉록을 내어줘 자금을 충당하게 하였으며, 민역(民役)의 수고로움을 피하여 추수가 끝난 10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3월 준공시키고 목사는 향음주례를 베풀어 온 고을 선비들에게 교화의 기회로 삼았다.

고봉 기대승의 7대손인 기학경(奇學敬, 1741~1809)이 「향교중수기」를 썼다. 이 기문은 기학경의 7대조 기대승이 1563년 「대성전중수상량문」을 쓴 뒤, 실로 240년 뒤에 나온 것이다. 60갑자(甲子)가 6번 돌아간 뒤 같은 계해(癸亥)년에 기씨 집안에서 다시 광주향교 중수기가 나오게 된 것에 기학경은 무한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기대승은 광주향교를 통하여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널리 지역민에게 교육할 것을 이상으로 삼았지만, 240년 뒤 기학경은 공자보다는 주자의 실천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격세지감이 드러난다. 하지만 “학교는 인재를 교육하는 곳이며, 풍화(風化)의 근본이 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유학의 성쇠는 참으로 학교

38) 강항, 「중수상량문」, 『광주향교지』, 광주향교지편찬위원회, 1987 : 進德修業欲及時, 士繼千聖之嫡統, 化民成俗必由學, 世返三代之淳風, 蔚爲邦家之光, 是乃教導之意.

39) 자는 택지(宅之), 시호는 효헌(孝憲)

40) 정낙찬 외 2인 편저, 『한국의 전통교육』, 영남대출판부, 2002, 209쪽.

의 흥폐에 달려있다는 인식은 세월이 변함이 없었다. 기학경은 특히 광주는 호남의 중심으로 물산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굳세고 영특하고 기절(氣節)을 숭상하고 문예를 좋아하여 그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광주인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아가 광주향교는 도학과 문장의 전통을 형성하고, 지역민에게 충효와 절의의 풍습을 지키게 하여 남방 학문의 정화를 얻게 하는 중심에 있다고 하였다.

오호라. 옛날의 이른바 학문이란 것이 어찌 글 읽는 것을 문장을 짓기 위해 그리고 녹봉을 구하기 위해서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륜(五倫)에 근거하여 궁리(窮理)와 독행(篤行)으로써 학문을 삼았던 것이 바로 주자(朱子)의 백록동규약(白鹿洞規約)이다. 우리 여러 군자들이 향교에 모여 거처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힘써 실천한다면 거의 국가가 학교를 설치하여 치화(治化)를 이룩하려는 뜻에 부응할 수 있고, 또 김선 목사의 은혜로운 가르침에 대해서도 저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sup>41)</sup>

그동안 향교 교육이 지역민의 사회교육이나 공공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고,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기관, 아니면 문예적 테크닉을 익히는 기관으로 오인된 것에 대한 반성을 제기한다. 학문이란 오륜과 같은 실천윤리를 배우고,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과거준비가 아닌 주자학적 가르침의 생활실천과, 그것을 위한 궁리와 독행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교나 서원의 실천교육에서 주자의 「백록동규약」은 공통 규범이 되었다. 그것은 선진유가의 문헌보다도, 주자의 해설서인 사서집주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학술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김선 목사에 의해 중수된 광주향교는 조철영(趙徹永, 1777~1853) 목사 재임 중인 1841년 명륜당과 동서 재실(齋室)이 화재로 모두 소실되는

41) 奇學敬, 「鄉校重修記」: 嗚呼. 古所謂學者, 豈讀書爲文爲利祿云哉. 本之五倫, 以窮理篤行爲學者, 朱子白鹿洞規也. 凡我諸君子群居於此, 深思之力行之, 則庶可以副, 國家設學, 致治之化, 而亦不負金侯之惠訓哉.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1843년 조철영 목사는 향교를 중수하게 되었고, 당대 우의정, 영의정까지 지낸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명륜당 중수기」를 써서 남겼다.

명륜당과 동서 재실이 불에 타자 조철영 목사는 성묘에 관한 일은 늦출 수 없다고 즉시 명을 내려 재물을 모으고 장인들을 불러 모았다. 한 달 남짓 기간에 준공하였는데, 공사비용은 관급미로 충당하여 고을 백성들에게 각출하는 부담을 넘기지 않았다. 완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고을의 장로와 유생을 불러 모아서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행하여서, 효제의 도리와 강학의 도를 가르쳤으니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근본을 아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유교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부역 시키는 일이 정치의 근본에 벗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인식을 통해서 보더라도 향교는 조선후기에 오면 관학, 즉 공립교육기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인영은 불탄 향교의 건물을 보수하고 새로 짓는 것이 주현(州縣)의 정치 근본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당시 양리(良吏)의 덕목으로 세금을 과다징수하지 않고, 시의 적절하게 백성의 쌀을 사들여 비축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을 빠트리지 않고 하는 일 등이 거론되었는데, 조인영은 이런 일 등은 정치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돌보고, 그 다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즉 학교의 교화야말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결론이다.<sup>42)</sup>

1843년 조철영 목사가 명륜당을 중수하였지만, 그 이후 광주향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쇠락 하여갔다. 철종5년(1854) 부임한 홍재응(洪在應) 목사는 향교의 문묘가 겨우 버팀목에 의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중수

42) 趙寅永, 『雲石遺稿』 권10, 「明倫堂重修記」: 州縣之政, 有本有末, 而近世號治行高第者, 大抵是姑息苟且之末耳. 若使稅不甚濫, 糶不甚欠, 簽不甚闕, 亦可謂今之良吏, 然於爲政之本, 遠矣. 國家以七事課牧守, 學校居農桑戶口之次, 卽古昔聖人富之教之之意也. 民而不富, 無以生也, 富而不教, 無以爲人也, 然則學校者, 教化之本也.

를 결정하였다. 2월에 시작해서 5월에 준공하였는데, 전당은 옛 모습을 유지하되 목재는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고 기와와 초석 이외의 모든 것을 새롭게 교체하였다. 목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재물을 염출하거나 노역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 고을의 대소사서인(大小士庶人)들이 모두들 기뻐하면서 목사의 공적을 칭송하였다. 이에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 「문묘중수기(光州文廟重修記)」를 기록하면서, 목사의 업무를 다음처럼 요망하였다.

대개 선비란 경학에 통하고 옛 학문 배우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야 하지, 문예라는 것은 말사(末事)에 불과한 것이다. 학문이란 공사(公私)를 식별하고 의리(義利)를 분별하는 것을 문로(門路)로 삼아야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학문 밖의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홍재응 목사가 능히 고을의 인사들로 하여금 문예(文藝) 외에 가히 바랄 바가 있음을 알게 하고, 과거 급제 외에 가히 구할 바가 있음을 알게 한다면, 목사가 향촌의 선비들을 깨우쳐서 그 직무를 빠지지 않고 완수함에 가까울 것이다.<sup>43)</sup>

기정진은 우선 선비다움을 부각시키면서 당시 학자들이 경학이나 옛 학문을 익히는 것에 노력하지 않고, 과거 준비의 문예로만 치닫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학문하는 목적은 현실적 상황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며, 공사(公私)를 구별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방관은 그 지역의 잘못된 인식과 구습을 깨우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국가차원의 목표를 지역사회에 제시하는 사회적 교화, 공공교육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향촌교화에 있어서 지방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기정진은 중국의 촉군(蜀郡)과 조주(潮州)가 궁벽진 향촌이었지만, 주희(朱熹)와 한유(韓愈)가 다스린 이후, 유교의 교화가 이루어진 고을로 바뀐 것처럼, 광주도 홍재응

43) 奇正鎭, 『蘆沙先生文集』 권21, 「光州文廟重修記」: 蓋士以通經學古爲本業, 而文藝其末事也. 學以識公私辨義利爲門路, 而科第是外物也. 侯能使州之人士, 知文藝之外有可願, 科第之外有可求, 則其於牖士, 庶幾不墜其職矣.

목사의 교화를 받아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호남 으뜸의 고을이 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 5. 나오며

향교는 공자를 제사지내는 공간이면서 교육의 공간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공자의 도를 계승하는 것에 있게 된다. 인륜과 정교(政敎)가 공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질서체제 및 민간예절도 이것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현명한 지방관은 조정의 풍교(風敎)를 실천에 옮김으로서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동아시아 교육-교화의 체계 및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의 체제에 따르면, ‘치국’이란 사회적 공공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치국’이란 개념 자체가 통치 엘리트층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교육이라는 뉘앙스를 가진다. 치자가 될 사람들, 즉 상층 엘리트층을 위한 통치 교육에서 시작된다. 향교에 대한 지방관의 지원은 이러한 상층 엘리트층에 대한 ‘치국’ 교육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지방관의 교화는 통치 엘리트층을 위한 지도자 교육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 공공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료나 목민관이 향촌민에 대한 교육,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그들에게 유교적 신념 체계를 전파하고 그것을 내재화시켜 그들로부터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내는 민중 대중 교육까지도 치국 교육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관의 교육 활동 전체를 ‘교화’라는 개념으로 개괄해볼 수 있다. ‘교화’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사회와 국가를 재구축하는 규모가 큰 교육 활동이다. 지방관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을 구성원에게 전달, 전수하는 활동을 폭넓게 실천하게 된다.

향교의 교육목적은 사환의 길에 나갈 엘리트들에게 유학적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일과, 향촌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발양하는 교화에 있었다. 조선의 유학지식인들이 구축하려고 했던 유교적 예교사회 실현을 위하여 향교교육이 이루어졌다. 향촌 공동체가 추구하는 좋은 사회의 모습은 하은주 삼대의 순수한 풍교가 실현되는 것이다. 유교적 치가(治家)/치국(治國)론은 유교 교화의 직접 담당자 내지 교화의 보조자로서의 사대부 내지 신사층, 즉 유교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발언된 것이 대부분이다. 유교 엘리트 자신이 피교육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유교적 교육과 교화의 이념을 습득해야 하는 존재인 동시에 민중에 대해서 유교적 교육과 교화를 베풀어야 할 교육자적 지위에 있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엘리트층에 대한 교육과 훈계가 곧바로 민중에 대한 교육-교화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켜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유교적 교육교화를 논의할 때에는, 유교 엘리트에 대해 발언되는 이론적 차원에서의 담론과는 별도로, 직접적으로 민중의 생활 안에서의 생활 관습과 사고의 교정, 즉 풍속의 교정을 통한 교화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그것을 '풍교'(민중교화, 풍속교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풍교(風敎)의 성패 여부가 때로는 지방관의 정치 전체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강 향, 「重修上樑文」

기정진, 『蘆沙先生文集』,

奇正鎭, 『蘆沙先生文集』권21, 「光州文廟重修記」

奇學敬, 「鄉校重修記」

李安訥, 『東岳先生集』

朴泰恒, 「養士齋節目序」

성 현, 『허백당집』

오횡목, 『叢瑣錄選』

정약용, 『牧民心書』

趙寅永, 『雲石遺稿』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읍성』, 1997. 14~15쪽.

광주직할시, 『광주읍지』, 1990, 47~48쪽.

박선홍, 『광주 1백년(1)』, 금호문화, 1994, 31쪽.

정낙찬 외 2인 편저, 『한국의 전통교육』, 영남대출판부, 2002, 209쪽,  
213~214쪽.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읍성』, 심미안, 2013.

김대식, 「朝鮮 書院 講學活動의 性格」, 『교육사학연구』 Vol.11, 서울대  
학교, 교육사학회, 2001.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 나주 경현서원  
을 중심으로」, 『국학연구』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김세민, 「광주향교의 이건과 중수」, 『향토서울』75호, 서울특별시 시사  
편찬위원회, 2010.

김정신, 「조선전기 향교의 정치, 사회적 성격과 쇠퇴 원인」, 『중원문화  
연구』13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9.

- 정덕희, 「조선후기 지방정부의 향교 재정 부담 규모 추정」, 『한국교육사학』 35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 정호훈, 「조선후기 향교 교육과 단양(丹陽)」, 『중원문화연구』 13권, 2009.
- 한예원,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학문의 형성과 전개양상」, 『고시가연구』 14집, 2004.
- \_\_\_\_\_, 「호남지역 서원의 교육활동- 『죽수서원지』를 통해 본 유교교양의 수용」, 『유학연구』 22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0.

투고일 : 2014년 7월 14일, 심사 : 7월 17일~8월 8일, 게재확정 : 8월 8일

<Abstract>

Study for Education–Edification of Gwang–ju Fortress  
: around poem about Gwangju Confucian temple

Han, Yae–won

Gwangju needs to establishing own identity as cultural aspect in civilization exchange, the twenty–first century. This study is one of ideal work for building own identity image utilizing data of lost Gwangju fortress.

Gwangju fortress have been lost for over 100 years. The literature materials of Gwangju fortress was studied before and the result was edited as <Gwangju fortress>. Especially, this paper includes life style, culture and education of Confucian temple in Gwangju fortress using many poem literatures.

Education of Confucian society was politics 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ole but it is very small part. However, Edification of people in the society was main political activ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so how to make and maintain this local school is good chance for interpretation of their proposal and contents.

The contents of Gwangju Confucian temple are education for Confucian intellectuals and edification for moral values of community spirit. The ideal society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of Confucial scholar is ancient chinese kingdom. They realized pure education of public morals

Key word : Gwangju fortress, Gwangju Confucian temple, education of public morals, Edification, Education community